

# <金匱眞言論>과 <五常政大論>에 나오는 五畜과 五穀의 五行配屬에 對한 註釋家들의 立場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南一

## 1. 머리말

<金匱眞言論>과 <五常政大論>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다. <金匱眞言論>에서는 먼저 四時와 五臟의 관계 및 四時에 따라 생기는 질병<sup>1)</sup>을 말한 후, 天의 陰陽과 인간의 陰陽을 합치시켜 설명하고 있고<sup>2)</sup>, 마지막으로 木火土金水 五行 순서에 따라 五方, 五色, 五臟, 五官, 五味, 五畜, 五穀, 五星, 五音, 五數를 배속시키고 있다. 또한 <五常政大論>에서는 먼저 五運 각각의 平氣, 不及, 太過를 논하고, 다음으로 땅의 四方에 高下에 따른 陰陽의 편차 및 이에 따른 壽夭의 차이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六氣 司天·在泉에 따른 사물의 변화와 그와 관계되어 發病한 증상 및 치료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五常政大論> 내용에는 五運의 平氣<sup>3)</sup>를 논한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五運 각각에 五類, 五政, 五候, 五令, 五臟, 五官, 五穀, 五果, 五實, 五季, 五蟲, 五畜, 五色, 五養, 五病, 五味, 五音, 五數 등을 배속시키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金匱眞言論>의 마지막 부분과 <五常政大論>의 앞 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편 가운데 후자에는 五政, 五候, 五果, 五實, 五蟲 등의 내용이 새로 첨가되어 있지만, 한편 五臟, 五官, 五穀, 五畜, 五色, 五味, 五音, 五數 등의 배속은

두편 모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 존재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五畜과 五穀의 배속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五畜에 대해서 <金匱眞言論>에서는 木火土金水 순서대로 鷄(닭), 羊(양), 牛(소), 馬(말), 彘(돼지)로 배속해 놓고, <五常政大論>에서는 犬(개), 馬(말), 牛(소), 鷄(닭), 彘(돼지)로 배속해 놓고 있다. 또한 五穀에 관해서 전자에서는 麥(보리), 黍(기장), 稷(피), 稻(벼), 豆(콩)으로, 후자에서는 麻(참깨), 麥(보리), 稷(피), 稻(벼), 豆(콩)으로 배열해 놓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들 두편에 이와같이 서로 다르게 배속되어 있는 五行配屬을 역대 주석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다루어 왔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의 제목을 “.....역대 주석가들의 입장 연구”라고 정한 것은 불행히도 이 논문을 작성한 논자가 이 주제에 관한 역대 주석가들의 해석을 명쾌하게 뒤엎을만한 대안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자 개인의 능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어왔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초기의

1) “東風生于春, 病在肝, 俞在頸項:.....夏暑汗不出者, 秋成風痺.”

2) “故曰, 陰中有陰, 陽中有陽,.....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故以應天之陰陽也.”

3) <五常政大論>에서는 五運의 平氣를 “木曰數和, 火曰升明, 土曰備化, 金曰審平, 水曰靜順”이라고 하고 있다.

주석가인 王氷은 몇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그때그때에 따라 임시방편적 주석을 달았고, 후대의 주석가들은 선배들의 주석을 베끼기에 급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별 진척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논자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들 주석들을 분석하여 그들이 말하고자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몇가지 연구 방향에 있어서의 대안만을 제시하여 학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행배속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 주제와 관련된 五畜과 五穀의 오행 배속에 관한 주석들을 그 주석서가 출판된 연대 순으로 나열하고 이를 분석고찰하여 보겠다. 주석의 인용서적은 王氷의 《次注黃帝內經素問》(762년 간행됨), 馬蒔의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1586년 간행됨), 吳崑의 《吳注黃帝內經素問》(1594년 간행됨), 張介賓의 《類經》(1624년 간행됨), 李中樞의 《內經知要》(1642년 간행됨), 張志聰의 《素問集注》(1669년 간행됨), 姚止庵의 《素問經注節解》(1679년 간행됨), 高世祚의 《素問直解》(1695년 간행됨), 丹波元簡의 《素問識》(1837년 간행됨), 丹波元堅의 《素問紹識》(1846년 간행됨), 山田業廣의 《素問次注集疏》(1870년 간행됨) 등 총 11종으로 하였다.

## 2. 五行配屬에 關하여

五行은 木火土金水 다섯가지의 물질적 성격을 띤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오행을 “다섯가지의 원소(five elements)”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 주는 데 미흡하다. 이들 다섯가지는 독립적으로 행세하지 않고 항상 상호 연관관

계 속에서 작용한다. 오행을 영원한 순환운동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다섯 변화의 국면 이론(Five phases of Change theory)”<sup>4)</sup>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五行은 모든 만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五行은 공간적으로 東西南北中央이 배당되고, 시간적으로 春夏秋冬長夏가 배당되어, 만물의 공간적 존재 위치와 시간적 消長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 이것은 한의학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한의학 이론의 기본틀을 제공한 《黃帝內經》에서는 五臟을 주체로 삼고 이를 五行에 배속시키고 부수적으로 五方, 五氣, 五味, 五色, 五情, 五體, 五志, 五官, 干支, 四時, 經絡, 五音, 五畜 등과 연계시켜 인체의 내외를 전체성을 바탕으로 엮어주고 있다. 五行은 또 相生과 相剋의 원리에 의해 상호간에 연관성을 공고히 하고 있으므로 각 장부에 배속된 내용들을 통해 그 장부의 성격 뿐만 아니라 여타 장부와 형성하는 생리병리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五行은 인체 내부에만 그치지 않고 인체 외부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五畜이나 五穀이 五行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이들과 生을 공유하고 있는 만물이 생태학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공급되는 五畜, 五穀 등의 음식물들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는 “毒藥攻邪, 五穀爲養, 五果爲助, 五畜爲益, 五菜爲充, 五味合而服之, 以補益精氣”라고 하여 이러한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을 음미해보면 五行에 따라 배속된 五穀, 五果, 五畜, 五菜, 五味 등이 인간과 관련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생존에

4)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Paul U. Unschuld로부터 비롯된다(MEDICINE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6쪽).

가장 절실한 것들이므로, 이것들은 인간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지어져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五穀, 五果, 五畜, 五菜, 五味만 그러하겠는가. 농사가 잘되느냐 못되느냐가 그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농부들에게 五時(春, 夏, 秋, 冬, 長夏), 干支, 五方 등이 얼마나 중요했을 것이며,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소리하는 사람들에게 五音(角, 徵, 宮, 商, 羽)이 얼마나 간절했을 것이며, 의학을 하는 의사들에게 五官(目, 舌, 口, 鼻, 耳), 五色(靑, 赤, 黃, 白, 黑) 등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결론적으로 논자는 五行配屬을 “인간과 만물이 구성하는 생태학적 연계체계를 설명하는 범주론”으로 정의하고 싶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생태학적 연계체계 속에서 인간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五畜과 五穀의 五行配屬에 관해 역대 주석가들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金匱眞言論〉과 〈五常政大論〉에 나오는 五畜의 배속

먼저 아래에 이를 도표화하였다.

#### 1) 〈金匱眞言論〉과 〈五常政大論〉의 五畜 配屬 차이(표1)

다음으로 이 배속에 관한 역대 주석가들

五行	木	火	土	金	水
金匱眞言論	鷄(닭)	羊(양)	牛(소)	馬(말)	彘(돼지)
五常政大論	犬(개)	馬(말)	牛(소)	雞(닭)	彘(돼지)

의 주석을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겠다.

#### 2)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5)

#### ①王冰(次注黃帝內經素問. 762년 간행.)

〈金匱眞言論〉

木(其畜鷄): 以鷄爲畜, 取巽言之. 易曰, 巽爲鷄.(1)

火(其畜羊): 以羊爲畜, 言其未也. 以土同王, 故通而言之(2)

土(其畜牛): 土旺四季, 故畜取丑牛, 又以牛色黃也(2)(3)

金(其畜馬): 畜馬者取乾也. 易曰, 乾爲馬(1)

水(其畜彘): 彘, 豕也(1)

〈五常政大論〉

木(其畜犬): 如草木之生無所避也(4)

火(其畜馬): 健決躁速火類同(4)

土(其畜牛): 成彼稼穡土之用也, 牛之應用其緩而和(5)

金(其畜鷄): 性善鬪傷象金用也(4)

水(其畜彘): 言下也. 彘, 豕也(1)(4)

#### ②馬蒔(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1586년 간행.)

〈金匱眞言論〉

木(其畜鷄): 易曰, 巽爲鷄, 木主巽, 故其畜鷄(1)

火(其畜羊): 五常政大論曰其畜馬而此曰羊者, 意在午未, 皆屬南方耳(2)

土(其畜牛): 土旺四季而丑牛色黃, 故其畜牛(3)

金(其畜馬): 易以乾爲金, 乾爲馬, 故其畜馬(1)

水(其畜彘): 易曰坎爲豕. 腎之所屬在坎, 故其畜彘, 彘者豕也.(1)

〈五常政大論〉

木(其畜犬): 五畜爲犬.

火(其畜馬): 五畜爲馬.

5)아래에서 문장뒤에 나오는 번호는 해석방법을 알기 쉽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 (1)은 周易, (2)는 干支配合, (3)은 色, (4)는 가축 자체의 성향, (5)는 쓰임새, (6)은 味, (7)은 犧牲, (8)은 《禮記·月令》, (9)는 《淮南子》 등의 해석 방법을 차용한 것을 번호로 표기한 것이다.

土(其畜牛): 五畜爲牛.  
金(其畜鷄): 五畜爲鷄.  
水(其畜彘): 五畜爲彘.

③吳崑(吳注黃帝內經素問.1594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畜鷄): 易曰, 巽爲鷄, 巽, 東方木也.(1)  
火(其畜羊): 王冰曰, 以羊爲畜, 言其未也.(2)  
土(其畜牛): 牛屬畜而色黃也.(3)  
金(其畜馬): 肺有乾象, 爲金爲馬.(1)  
水(其畜彘): 彘, 猪也, 色黑以象水.(3)  
〈五常政大論〉: 이에 관한 특별한 주석이 없음.

④張介賓(類經. 1624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畜鷄): 易曰巽爲鷄, 東方木畜也.(1)  
火(其畜羊): 五常政大論曰其畜馬, 而此曰羊者, 意謂午未俱屬南方耳.(2)  
土(其畜牛): 牛屬丑而色黃也. 易曰坤爲牛.  
(1)(2)(3)

金(其畜馬): 肺爲乾象. 易曰乾爲馬.(1)

水(其畜彘): 彘, 猪也. 易曰坎爲豕.(1)

〈五常政大論〉

木(其畜犬): 味酸也. 金匱真言論曰, 其畜鷄無犬.(6)

火(其畜馬): 快捷躁疾, 得火性也. 金匱真言論, 金畜曰馬, 火畜曰羊.(4)

土(其畜牛): 其性和緩其功稼穡, 得土氣也.(4)

金(其畜鷄): 性好鬪, 故屬金. 金匱真言論, 木畜曰鷄, 金畜曰馬.(4)

水(其畜彘): 豕也. 其色多黑, 其性善下.(3)(4)

⑤李中梓(內經知要. 1642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畜鷄): 易曰, 巽爲鷄, 東方風木之畜也.(1)

火(其畜羊): 五常政大論曰, 其畜馬. 此云羊者, 或因午未俱在南方耳.(2)

土(其畜牛): 牛屬丑而色黃, 易曰乾爲牛.(1)(2)(3)

金(其畜馬): 肺爲乾象, 易曰乾爲馬.(1)

水(其畜彘): 易曰坎爲水.(1)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를 기록해 놓지 않음.

⑥張志聰(素問集注. 1669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畜鷄): 易曰, 巽爲鷄, 東方木畜也.(1)

火(其畜羊): 五常政大論曰, 其畜馬, 蓋以五味皆屬火也.(6)

土(其畜牛): 牛色黃而屬土, 故爲脾畜.(3)

金(其畜馬): 乾爲馬, 肺屬乾金而主天.(1)

水(其畜彘): 彘, 豕也. 色黑而屬亥.(2)(3)

〈五常政大論〉

木(其畜犬): 犬性勇往直前, 感春生發怒之氣也.(4)

火(其畜馬): 馬屬午, 火之畜也.(2)

土(其畜牛): 牛土之畜也.(5)

金(其畜鷄): 鷄性善鬪, 感肅殺之氣也.(4)

水(其畜彘): 彘, 豕也.(1)

⑦姚止庵(素問經注節解. 1679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畜鷄): 易曰, 巽爲鷄.(1)

火(其畜羊): 以羊爲畜, 言其未也, 以土同王, 故通而言之. 其畜馬, 與此不同.(2)

土(其畜牛): 土王四季, 故畜取丑牛, 又以牛色黃也.(2)(3)

金(其畜馬): 取乾也. 易曰, 乾爲馬.(1)(2)

水(其畜彘): 주석이 없음.

〈五常政大論〉

木(其畜犬): 如草木之生, 無所避也. 按金匱真言論云, 其畜鷄.(4)

火(其畜馬): 健決躁速, 火類同. 按金匱真言論云, 其畜羊.(4)

土(其畜牛): 成彼稼穡, 土之用也. 按亦厚重而色黃也.(3)(4)(5)

金(其畜鷄): 鷄性喜斗, 象金殺也. 金匱真

言論云, 其畜馬, 與此不同.(4)

水(其畜彘): 按彘喜臥而不惡濕, 象冬藏屬也.(4)

⑧高世栻(素問直解, 1695년 간행.)

〈金匱眞言論〉

木(其畜鷄): 巽爲鷄, 東方木畜也.(1)

火(其畜羊): 羊性內剛, 火之畜也.(4)

土(其畜牛): 坤爲牛, 土之畜也.(1)

金(其畜馬): 乾爲馬, 金之畜也.(1)

水(其畜彘): 彘, 黑色, 而支亥水之畜也.(2)(3)

〈五常政大論〉

木(其畜犬): 犬性勇往直前, 猶春之迅發, 故其畜犬.(4)

火(其畜馬): 馬, 乾象, 主天, 天以日光明, 故其畜馬.(1)

土(其畜牛): 牛, 坤象, 屬地, 地主生物, 故其畜牛.(1)

金(其畜鷄): 鷄, 支酉, 屬金, 而喜斗, 猶金之攻伐, 故其畜鷄.(4)

水(其畜彘): 彘, 支亥, 而質寒, 故其畜彘.(2)

⑨丹波元簡(素問識, 1837년 간행.)

〈金匱眞言論〉

木(其畜鷄): 五行大義云, 鄭玄云, 鷄屬木, 此取其將旦而鳴近寅木, 故又振羽翼, 有陽性也. 賈誼新書云, 鷄, 東方之牲也.(2)(4)(7)

火(其畜羊): 月令, 春食麥與羊. 鄭注, 羊, 火畜也, 時尙寒, 食之以安性也. 簡按王云, 言其未, 非.(7)(8)

土(其畜牛): 月令中央鄭注, 牛, 土畜也. 正義云, 易, 坤爲牛, 是牛屬土也. 簡按王注牽強.(7)(8)

金(其畜馬): 周禮六牲, 馬其一也. 穆天子傳, 有獻食馬之文. 郭璞注云, 可以供廚膳者.(7)(8)

水(其畜彘): 月令冬鄭注, 彘, 水畜也. 揚雄方言云, 猪, 北燕朝鮮之間謂之豨. 關東西或謂之彘.(8)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⑩丹波元堅(素問紹識, 1846년 간행.)

〈金匱眞言論〉

木(其畜鷄): 先兄曰, 周禮獸醫疏, 在野曰獸, 在家曰畜. 釋文畜計又切. 又淮南子作羊.(9)

火(其畜羊): 先兄曰, 淮南子作鷄.(9)

土(其畜牛): 기록 없음.

金(其畜馬): 先兄曰, 淮南子作狗.(9)

水(其畜彘): 기록 없음.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⑪山田業廣(素問次注集疏, 1870년 간행.)

〈金匱眞言論〉

木(其畜鷄): 吳氏曰, 易曰, 巽爲鷄, 鷄, 東方木也. 五行大義曰, 鄭玄云, 鷄屬木, 此取其將旦而鳴近寅木, 故又振羽翼, 有陽性也.(1)(4)

火(其畜羊): 五常政大論曰, 其畜馬, 而此曰羊者, 意以午未, 皆屬南方耳. 按馬吳張注意竝與王注同, 劉君廉夫曰, 月令, 春食麥與羊, 鄭注, 羊火畜也, 時尙寒, 食之以安性也. 按王云言其未, 非.(7)(8)

土(其畜牛): 吳氏曰, 牛屬畜而色黃也.(3)

金(其畜馬): 吳氏曰, 肺有乾象, 爲金爲馬.(1)

水(其畜彘): 馬氏曰, 易曰坎爲豕. 腎之所屬在坎, 故其畜彘, 彘者豕也. 月令, 孟冬仲冬季冬, 竝云食黍與彘, 鄭注彘水畜也.(1)(8)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3) 五畜의 배속에 관한 역대 註釋家들의 입장 고찰

이들 주석들의 특징적인 면을 꼬집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周易理論으로 해석을 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五畜에 주역적 해석을 처음으로 가한 사람은 唐代의 王冰이다. 후대에 주역적 해석을 가한 주석은 그의 주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6) 그는 東方木에

배당되어 있는 “其畜雞”에 대해 “以鷄爲畜，取巽言之。易曰，巽爲鷄”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巽爲鷄”는 〈說卦傳·八〉에 나오는 말이다. 〈說卦傳·八〉은 八卦에 가축을 배속시켜 놓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전체 문장은 “乾爲馬，坤爲牛，震爲龍，巽爲雞，坎爲豕，離爲雉，艮爲狗，兌爲羊.”이다. 왕빙의 주석은 東方木과 巽과 雞와 연관되어져 있는 〈說卦傳〉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왕빙은 〈說卦傳·五〉의 “齊乎巽，巽，東南也。齊也者，言萬物之潔齊也.”라고 巽卦와 東南方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과 〈說卦傳·八〉의 “巽爲雞”라는 내용을 연결시켜 “其畜鷄”를 풀고 있다. 吳崑, 張介賓, 李中梓, 張志聰, 高世栻 등은 왕빙을 이어 “巽은 東方木”이라는 말을 더해 넣었다. 西方金에 배속되어 있는 “其畜馬”에 대해서는 “畜馬者取乾也。易曰，乾爲馬.”라고 하였다. 이것은 東方木에서와 마찬가지로 〈說卦傳·八〉을 취하여 해석한 것이다. 乾卦는 〈說卦傳·五〉에 따르면 東北方에 속하므로 이를 따른 것이다.<sup>7)</sup> 北方水에 배속되어 있는 “其畜彘”에 대해서는 “彘，豕也.”라고만 하였다. 王冰 바로 뒤에서 바튼을 이어 주석을 가한 馬蒔는 “易曰，坎爲豕，腎之所屬在坎，故其畜彘，彘者豕也.”라고 주석을 가하여 새로운 주역적 해석을 가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王冰이 “其畜彘”의 경우에 주역적 해석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그가 “彘，豕也.”라고 주석한 豕라는 글자는 〈說卦傳·八〉의 “坎爲豕”의 글자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역적 해석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번째는 干支와 배합시킨 해석이다. 그 최초는 〈金匱眞言論〉에서 火와 土의 배속에 대한 왕빙의 해석이다. 왕빙은 南方火에 해당되는 “其畜羊”에 대해서는 “以羊爲畜，

言其未也。以土同王，故通而言之.”라고 十二支로 해석하고 있다. 〈說卦傳·八〉에 나오는 南方離卦에는 “離爲雉”로 되어 있으므로 《黃帝內經》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未에 해당하는 띠인 양을 배속시켜 설명하였다. 이후에 馬蒔 또한 “五常政大論曰，其畜馬，而此曰羊者，意以午未皆屬南方耳.”라 하여 羊이 火에 속함을 十二支 배속으로 설명하고 있어 왕빙의 주석을 따르고 있고, 吳崑, 張介賓, 李中梓, 姚止庵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張志聰이 干支의 해석을 탈피하고 五味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고, 高世栻이 羊을 성격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 丹波元簡이 羊 자체의 藥性으로 해석하고 王冰을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中央土에 해당되는 “其畜牛”에 대해서도 南方火와 비슷한 논리로 “土王四季，故畜取丑牛，牛以牛色黃也.”라고 하였다. 차이가 나는 것은 牛를 색깔과도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셋째는 色과 연관지은 것이다. 이는 대체로 牛의 경우가 그러한데, 간혹 高世栻의 彘에 대한 설명에서 보듯이 彘의 경우에도 보인다. 이들 두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마도 五畜 가운데 외형적으로 五行의 본색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두가지의 경우이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그 가축 자체의 성향과 연관지은 것이다. 이는 대체로 〈五常政大論〉의 배속에 대한 해석에 많이 보인다. 왕빙은 草木의 거침없이 자라나는 모습과 犬의 꺼리낌 없음을 비유적으로 대비시켰고, 馬의 빨리 달리는 성향과 火를 대비하고, 鷄의 싸움질함을 金에 대비하고, 彘의 몸을 낮추는 성향을 水에 대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직관적 관찰이다. 犬에 대한 설명은 張志聰, 高世栻 등에 의해 犬의 용감하게 앞으로 뛰쳐나가는 성향을 春의 發怒

6) 왕빙의 주역적 해석은 〈金匱眞言論〉에만 보이고 〈五常政大論〉에는 보이지 않는다.

7) “戰乎乾，乾西北之卦也，言陰陽相薄也.”

하는 氣를 感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섯째, 쓰임새와 연관시킨 경우이다. 이는 대체로 <五常政大論>의 牛에 대한 설명의 경우에 그러하다. 농업을 위주로 생산 수단을 삼는 중국 사회에서 牛는 소중한 생산 수단이었을 것이다. 토에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牛를 이에 대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여섯째, 味에 의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五常政大論>의 犬에 대한 해석에 보이는데, 張介賓이 최초로 犬의 味가 酸이라고 한 것에서 나온다. 그러나, 漢末에 성서되었다는 <名醫別錄>에서도 이미 “味鹹酸, 溫”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별로 신선할 것도 없는듯하다.

일곱째, 이들 가축들을 제사에 사용하는 犧牲으로써 인식한 경우이다. 丹波元簡의 鷄에 대한 해석에 보이는 이것은 <禮記·月令>에 의한 해석을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 학자들의 특성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듯하다.

여덟째, <禮記·月令>에 의한 해석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일본학자들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이러한 해석법을 주장하면서 왕빙식의 干支配屬에 의한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五畜配屬에 대한 주석가들의 입장 비교를 마치고 五穀의 배속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4. <金匱真言論> 과 <五常政大論> 에 나오는 五穀의 배속

먼저 아래에 이를 도표화하였다.

##### 1) <金匱真言論> 과 <五常政大論> 의 五穀 配屬 차이(표2)

다음으로 이 배속에 관한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을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겠다.

##### 2)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 8)

###### ①王冰(次注黃帝內經素問, 762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五穀之長者麥, 故東方用之.

五行	木	火	土	金	水
金匱真言論	麥 (보리)	黍 (기장)	稷 (피)	稻 (벼)	豆 (콩)
五常政大論	麻 (참깨)	麥 (보리)	稷 (피)	稻 (벼)	豆 (콩)

本草曰, 麥爲五穀之長(1)

火(其穀黍): 黍色赤(2)

土(其穀稷): 色黃而味甘也(2)(3)

金(其穀稻): 稻堅白(2)(4)

水(其穀豆): 豆黑色(2)

<五常政大論>

木(其穀麻): 色蒼也(2)

火(其穀麥): 色赤也(2)

土(其穀稷): 色黃也(2)

金(其穀稻): 色白也(2)

水(其穀豆): 色黑也(2)

###### ②馬蒔(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1586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麥爲五穀之長, 故肝之爲穀曰麥. 禮月令, 孟春仲春季春之月, 天子食麥與羊.(1)(5)(7)

火(其穀黍): 黍色赤故曰其穀黍.(2)

8)아래에서 문장뒤에 나오는 번호는 해석방법을 알기 쉽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 (1)은 本草書, (2)는 色, (3)은 味, (4)는 외형적 특성, (5)는 <禮記·月令>, (6)은 성숙시기, (7)은 藥性和 主治證 등의 해석 방법을 차용한 것을 번호로 표기한 것이다.

土(其穀稷): 稷之色黃, 而其味甘, 故其穀稷.  
(3)(4)

金(其穀稻): 稻之性堅而色白, 故其穀稻.(2)(4)

水(其穀豆): 豆主黑色, 故其穀豆. 本草以  
豆之黑色者入藥.(1)(2)

〈五常政大論〉

木(其穀麻): 五穀爲麻.

火(其穀麥): 五穀爲麥.

土(其穀稷): 五穀爲稷.

金(其穀稻): 五穀爲稻.

水(其穀豆): 五穀爲豆.

③吳崑(吳注黃帝內經素問. 1594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麥爲五穀之長, 故東方主之.(1)

火(其穀黍): 黍色赤.(2)

土(其穀稷): 色黃而味甘.(2)(3)

金(其穀稻): 稻之堅白象金.(2)(4)

水(其穀豆): 實而潤以象水.(4)

〈五常政大論〉: 이에 관한 특별한 주석이 안보임.

④張介賓(類經. 1624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麥成最蚤, 故應東方春氣. 五  
常政大論曰, 其畜犬, 其穀麻.(5)(6)

火(其穀黍): 黍之色赤, 糯小米也. 五常政  
大論曰其穀麥.(2)

土(其穀稷): 稷, 小米也. 粳者爲稷, 糯者  
爲黍, 爲五穀之長, 色黃屬土.(2)

金(其穀稻): 稻堅而白故屬金.(2)(4)

水(其穀豆): 菽也, 黑者屬水.(2)

〈五常政大論〉

木(其穀麻): 麻之色蒼也. 金匱真言論曰,  
其穀麥無麻.(2)

火(其穀麥): 色赤也. 金匱真言論, 火穀曰黍,  
木穀曰麥, 又藏氣法時論亦言麥苦.(2)

土(其穀稷): 小米之糯者曰稷, 穀也.(2)

金(其穀稻): 色白也.(2)

水(其穀豆): 菽也. 穀色純黑, 惟豆有之.(2)

⑤李中梓(內經知要. 1642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麥成最早, 故應東方春氣.(6)

火(其穀黍): 黍色赤, 宜爲心家之穀. 五常政大  
論云, 其穀麥二字相倚疑悞也.(2)

土(其穀稷): 稷, 小米也. 粳者爲稷, 糯者  
爲黍, 爲五穀之長, 色黃屬土.(2)

金(其穀稻): 稻色白, 故屬金.(2)

水(其穀豆): 黑者屬水.(2)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⑥張志聰(素問集注. 1669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麥爲五穀之長, 故東方應之.(1)

火(其穀黍): 黍糯小米也. 性溫而色赤, 故  
爲心之穀.(7)

土(其穀稷): 色黃而味甘.(2)(3)

金(其穀稻): 稻色白而秋成故爲肺之穀.(5)(6)

水(其穀豆): 豆色黑而性沈, 故爲水之穀.(2)(4)

〈五常政大論〉

木(其穀麻): 在穀爲麻, 麻體木象, 其色蒼也.(2)(4)

火(其穀麥): 麥乃夏成之穀也.(5)

土(其穀稷): 稷, 穀也.(2)

金(其穀稻): 稻乃秋成之穀也.(6)

水(其穀豆): 豆乃水之穀也.

⑦姚止庵(素問經注節解. 1679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本草曰, 麥爲五穀之長, 按五常政  
大論云, 其畜犬, 其穀麻, 與此不同.(1)

火(其穀黍): 黍色赤.(2)

土(其穀稷): 色黃而味甘.(2)(3)

金(其穀稻): 稻堅白.(2)(4)

水(其穀豆): 按注言豆黑色也, 誤矣. 今豆色不  
止于黑, 蓋以其味厚而益腎也. 稽叔夜曰, 豆令人  
重.(7)

〈五常政大論〉

木(其穀麻): 色蒼也. 按金匱真言論云, 其穀麥, 與此不同.(2)  
 火(其穀黍): 色赤也. 按金匱真言論云, 其穀黍.(2)  
 土(其穀稷): 稷色黃.(2)  
 金(其穀稻): 稻色白.(2)  
 水(其穀豆): 豆與粟皆益腎者.(7)

⑧高世栻(素問直解. 1695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發生于春, 五穀之長, 肝之穀也(1)  
 火(其穀黍): 黍色赤, 性溫, 心之穀也.(2)(7)  
 土(其穀稷): 稷色黃, 味甘, 脾之穀也.(2)(3)  
 金(其穀稻): 稻色白而秋成, 肺之穀也.(2)(5)  
 水(其穀豆): 豆性沈, 形象腎, 腎之穀也.(4)(7)

〈五常政大論〉

木(其穀麻): 麻體直而色蒼, 爲五穀之首, 故其穀麻.(1)(2)(4)  
 火(其穀麥): 麥春生夏熟, 故其穀麥.(5)  
 土(其穀稷): 稷似黍而色, 故其穀稷.(2)  
 金(其穀稻): 稻米完而稻薪堅, 故其穀稻.(4)  
 水(其穀豆): 豆下沈而性寒, 故其穀豆.(4)(7)

⑨丹波元簡(素問識. 1837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月令鄭注云, 麥實有孚甲, 屬木.(5)  
 火(其穀黍): 志云, 黍, 糯小米也, 性溫而赤色, 故爲心之穀. 簡按五行大義云, 黍, 色赤性熱. 又云, 黍, 舒散屬火.(1)(7)  
 土(其穀稷): 張云, 稷, 小米也. 稷者爲稷, 糯者爲黍, 爲五穀之長, 色黃屬土. 簡按月令中央, 食稷與牛. 鄭注, 稷, 五穀之長.(5)

金(其穀稻): 志云, 稻色白而秋成, 故爲肺之穀.(2)(5)

水(其穀豆): 月令夏鄭注, 菽, 實孚甲堅合, 屬水.(5)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⑩丹波元堅(素問紹識. 1846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기록 없음.

火(其穀黍): 說文, 黍, 禾屬而黏者也. 以

大暑而種, 故謂之黍. 孔子曰, 黍可爲酒, 禾入水也. 程瑤田, 九穀考就說文有詳說曰, 黍淡黃色, 又有赤黍雜黑黍中者, 韓非子吳起欲秦小亭置一石赤黍東門外, 又曰赤黍白黍. 宋之蘇頌以冒藁芑, 是不知藁芑之爲赤白苗也.

土(其穀稷): 기록 없음.

金(其穀稻): 詳見湯液醪醴論이라고 되어있음. 〈湯液醪醴論〉에는 “程瑤田九穀考曰, 說文, 稻, 稌也, 稌, 稻也. 周禮曰, 牛宜稌稷. 沛國謂稻曰稌. 案稻稌大名也. 稌糯也. 其粘者也. 稷之爲言硬也, 不粘者也. 南方謂之秣. 七月之詩, 十月獲稻. 爲此春酒, 以介眉壽. 月令仲冬乃命大酉, 秣稻必齊. 內則雜記, 并有稻醴. 左傳進稻醴梁稊. 內經黃帝問爲五穀湯液及醪醴. 岐伯對曰, 必以稻米舂之. 稻薪皆言釀稻爲酒醴. 是以稻爲粘者之名, 粘者以釀也. 糜粘黍稷粘秫皆可以釀者也. 內則糝配用稻米, 籩人職之餌糝. 注亦以爲用稻米, 皆取其粘耳. 先兄曰, 高云湯液醪醴, 五穀皆可爲之, 而秋成之, 稻穀尤佳. 志云, 稻得春生夏長秋收冬藏之氣, 具天地陰陽之和者也.” 라고 쓰여 있다.

水(其穀豆): 기록 없음.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⑪山田業廣(素問次注集疏. 1870년 간행.)

〈金匱真言論〉

木(其穀麥): 張氏曰, 麥成最蚤, 故應東方春氣. 馬氏曰, 禮月令, 孟春仲春季春之月, 天子食麥與羊. 禮月令, 鄭注曰, 麥實有孚甲, 屬木.(5)

火(其穀黍): 張氏志聰曰, 黍糯小米也, 性溫而赤色, 故爲心之穀(7)

土(其穀稷): 張氏曰, 稷, 小米也. 稷者爲稷, 糯者爲黍, 爲五穀之長, 色黃屬土. 禮記月令中央云, 食稷與牛, 鄭注, 稷五穀之長.(5)

金(其穀稻): 吳氏曰, 稻之堅白象金. 張氏志聰曰, 稻色白而秋成故爲肺之穀.(2)(4)(6)

水(其穀豆): 張氏曰, 菽也. 黑者屬水. 月令, 孟夏, 食菽與鷄, 鄭注, 菽實, 孚甲堅合, 屬水.(2)(5)

〈五常政大論〉: 이 편 자체가 없음.

### 3) 五穀의 배속에 관한 역대 註釋

#### 家들의 입장 고찰

이들 주석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특징적인 면을 꼬집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초서의 기록이 보인다. 왕빙은 “本草曰, 麥爲五穀之長”이라는 문장으로 麥이 木에 배속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이용되었다.

둘째, 色과 연관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五常政大論>의 해석에 많이 보인다. <五常政大論>에 배속된 五穀의 빛깔은 대체로 靑赤黃白黑 五色과 일치하기 때문에 <五常政大論>에 주석을 가할 때 이를 즐겨 사용한 것 같다. 이러한 전통은 王氷으로부터 張志聰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姚止庵은 水에 배속되어 있는 豆가 黑色말고도 여러가지 色의 豆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해석 방법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藥性和 主治證과 연결시키고 있다(“其味厚而益腎也”).

셋째, 味와 연관시킨 경우가 보였는데, 이는 특히 土에 배속된 稷에 대한 해석에 많이 보인다. 이것은 모두 五穀들이 대체로 모두 甘味에 치우친 점을 생각할 때, 상당히 궁색한 주석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외형적 특성과 연관시킨 것이 보인다. 이것은 대부분 金에 배속된 稻의 해석에 보인다. 稻는 단단하고 색깔이 흰 데, 이것은 金의 속성과 유사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禮記·月令>에 의한 해석이 많이 보인다. 五畜의 경우에 일본학자들이 이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이 보이듯이 五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학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다.

여섯째는 성숙시기와 연관시킨 해석들이다. 金에 배속된 稻의 경우가 가을에 성숙되는 것이고, <金匱眞言論>에 木에 배속된 麥은 일년 중에 가장 먼저 성숙되는 것

이므로, 이들 두가지가 부합되는 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일곱째는 藥性和 主治證을 직접 연관시켜 말한 것이다. 물론 色과 味만으로도 藥性和 主治證은 연결되고, 또 이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약물로 사용되어 온 것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은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본다.

이상으로 五畜과 五穀의 배속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아래에서 종합적 고찰을 하겠다.

## 5.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 五畜과 五穀의 五行配屬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입장을 고찰해보았다. 이들 주석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혼재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五行 각각의 성격 - 예를 들면, 木의 生發하는 성격, 火의 發散하는 성향 등등 - 에 대한 의미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주역적 해석만을 위주로 한 사람이 氣味論的 해석을 부정했다든지, 干支를 配伍시켜 해석한 사람이 그 쓰임새에 의한 해석을 부정했다든지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주의를 요하므로 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두편의 五畜과 五穀의 五行配屬 차이는 王氷이 《黃帝內經·素問》을 다시 재편집하면서부터 생긴 문제점이다.<sup>9)</sup> 이에

9) 王氷에 의해 본래 九卷이었던 것이 二十四卷으로 개편되었고, 본래 없었던 七卷의 내용이 보태졌고, 순서를 재 편성하여 양생(養生), 음양오행(陰陽五行), 장상(藏象), 치법(治法), 맥법(脈法), 경맥(經脈), 질병(疾病), 자법(刺法), 운기(運氣), 의덕(醫德) 및 잡론(雜論) 등의 순서로 재구성되었다. 왕빙이 새로 첨가해 넣은 편은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 (이상 일명 “運氣七篇”)과 <六節藏象論>의 일부 내용이다. 왕빙은 이들 내용을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馬蒔이다. 馬蒔는 火에 배속된 가축이 〈金匱眞言論〉에는 羊이고, 〈五常政大論〉에는 馬인 것을 이 두 가축이 모두 干支로 午未에 속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각하건데 午未가 모두 南方에 속하기 때문이다(意在五味, 皆屬南方耳).”라고 주장을 한다. 馬蒔의 주장은 張介賓, 李中梓 등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張志聰은 보다 구체적으로 五味로 해석하여 “아마도 五味로써 모두 火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蓋以五味皆屬火也).”라고 하였다. 이것은 五味를 매개로 상호 모순되는 배속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후대의 일본학자군은 運氣七篇<sup>10)</sup>에 대한 주석을 전혀 하지 않고, 본 주제에 관하여는 철저하게 〈金匱眞言論〉의 입장에 서려고 하였다. 이 때 동원된 것이 《禮記·月令》 등 서적이다. 《禮記·月令》은 陰曆 12개월을 순서에 따라 각 달의 日月星辰의 운행, 節候 및 氣溫의 변화, 동식물의 생태, 時候에 맞춘 國家的 대응 양식 및 이를 통한 생산의 안배와 月中 행사의 政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주체는 天子인데, 天子는 계절에 따라 政務를 하는 방을 달리하고, 타는 것, 세우는 旗色, 먹는 飲食(畜과 穀)을 달리한다. 그 서적의 五行配屬은 五畜의 경우에는 羊(木), 雞(火), 牛(土), 犬(金), 雉(水)의 순서로 배속되어 있고, 五穀의 경우에는 麥(木), 菽(火), 稷(土), 麻(金), 黍(水)의 순서로 배속되어 있다. 이 배속은 본 논문 주제와 관련된 兩篇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 준다. 그런데도 일본학자들은 고집스럽게 《禮記·月令》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의학자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온 中國 학자군들을 뒤엎을 만큼 참신하지는 못하였다.

주역적 해석에 치중하고 있는 중국 학자군들의 궁색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舊藏之卷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학술계를 지배한 주역이론을 의학이론 해석에 동원하여 후세의 이해를 돕고자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黃帝內經》에 대한 王冰의 주석에 많은 부분이 주역이론이 동원된 이래로 한의학 이론을 주역이론으로 재해석하려는 풍조는 한의학사 전체를 통털어 면면히 이어져 왔다. 明代의 李時珍 같은 이는 동물성 약물을 해석할 때 주역의 卦象을 많이 동원하고 있다. 그는 〈說卦傳〉의 “乾爲馬, 坤爲牛, 震爲龍, 巽爲雞, 坎爲豕, 離爲雉, 艮爲狗, 兌爲羊”의 이론을 동원하여 馬와 牛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乾陽爲馬, 坤陰爲牛. 故馬蹄圓, 牛蹄圻. 馬病則臥, 陰勝也; 牛病則立, 陽勝也. 馬起先前足, 臥先後足, 從陽也; 牛起先後足, 臥先後足, 從陰也.”(《本草綱目·獸部第五十券·牛·集解》).

이것은 馬와 牛를 乾(陽), 坤(陰)에 배속시키고 陰陽의 盛衰로 病理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金匱眞言論〉의 土畜과 金畜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sup>11)</sup>

이러한 풍토는 상당히 뿌리가 깊다. 이론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응용된 것들이므로 실제적 의미도 컸을 것이다.

또한 주역적 해석 방법은 사물의 象을 살피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므로, 배속물의 성향에 의한 해석과도 연관성이 있다. 닭의

10) 왕빙이 새로 첨가해 넣은 편인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真要大論〉의 7개 篇을 말함.

11) 이외에도 “雉屬離火, 雞屬巽木. 故雞煮則冠變, 雉煮則冠紅, 明其屬火也”라고 離卦와 巽卦를 雉와 雞에 배속시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 “諸羊皆孕四月而生. 其目無神, 其腸薄而筋曲. 在畜屬火, 故易繁而性熱也. 在卦象屬兌, 外柔而內剛也. 其性惡濕喜燥, 食鉤吻而肥, 食仙茅而筋, 食仙靈脾而淫, 食躑躅而死. 物理之宜忌, 不可測也”(《本草綱目·羊·集解》)라고 하여 兌卦의 外柔而內剛으로 羊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도 보인다.

싸움을 좋아하는 성향을 金의 用으로 파악한 왕빙의 주석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적은 해석 체계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것들은 色, 味, 외형적 특성, 藥性 및 主治證을 연결시킨 해석들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강한 삶”은 사변적 해석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약물에 대한 이론 체계는 직관적 감각들-맛, 색, 향기 등-에 의존한다. 여러 가지 본초에 관한 서적들은 빠짐없이 氣味, 形色, 歸經들을 기록하여 그 약물을 정의해 주고 있다.

## 6. 결론

지금까지 역대 주석가들은 <金匱眞言論> 과 <五常政大論> 의 五畜 및 五穀의 五行配屬에 관해 먼저 五畜에 관해서는 周易, 干支配合, 色, 가축 자체의 성향, 쓰임새, 味, 犧牲, <禮記·月令>, <淮南子> 를 동원하였고, 五穀에 관해서는 本草書, 色, 味, 외형적 특성, <禮記·月令>, 성숙시기, 藥性과 主治證 등을 동원하여 해석을 가하였다. 그러나 모두 만족할 만한 결론은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특히 兩篇의 배속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규명해 주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안할 만한 새로운 접근을 구상해 본다. 이러한 구상이 필요한 이유는 五畜, 五穀 이 두가지 만큼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논자는 먼저 이러한 배속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를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 연구 방향을 학계에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禮記·月令>, <淮南子>, <金匱眞言論>, <五常政大論> 등이 저술된 시대가 서로 다르므로, 저술된 시대의 환경적 차이가 그 글을 쓰는데 안에서 많이 작용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 저술들이 쓰여진 시대와 지역의 풍토, 풍습 등을 조사해 본다면 이러한 배속의 차이를 밝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둘째, 좀더 실천적 견지에서, <禮記·月令>, <淮南子>, <金匱眞言論>, <五常政大論> 의 五行配屬이 계속 변해왔고, 또 이 변화로 인하여 그 배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에 맞게 적응하여 왔으므로, 한의학을 하는 학자, 한의사,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배속표를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론 체계들 - 예를 들면, 五味, 五色, 五聲, 厚薄, 輕重 등 - 각각에 맞추어 얼마든지 서로 다른 배속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7. 참고문헌

- 1)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一,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 2) 丹波元簡, 《素問識》, 인민위생출판사, 1984.
- 3) 丹波元堅, 《素問經識》, 인민위생출판사, 1984.
- 4)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인민위생출판사.
- 5)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 6) 張介賓, 《類經》, 대성문화사, 1982.
- 7) 張繼有 等編,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중국고적출판사
- 8) 顧從德,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국립중국의약연구소출판.
-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 10) 李浚川, 《醫易會通精義》, 인민위생출판사, 1991.
- 11) 조셉니담,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을유문화사, 1988.
- 12) 《原本周易》上·下, 세창서관.
- 13) 李正浩 편, 《周易字句索引》, 국제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8.
- 14) 洪元植 편저,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

- 구소, 1987.
- 15) 《黃帝內經素問校釋》上·下, 인민위생출판사, 1982.
  - 16) 《黃帝內經靈樞校釋》上·下, 인민위생출판사, 1982.
  - 17) 《禮記》, 漢文大系 十七.
  - 18) 가노 나오키, 《중국철학사》, 을유문화사, 1986.
  - 19) 程士德, 《內經》, 知音出版社.

